



#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으로 인터넷 역기능 해결한다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원장

인터넷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첨병이며 동시에 근간이 되고 있다. 미국 각지의 연구소와 대학의 컴퓨터를 연결해 방대한 자원을 공유·활용할 목적으로 1969년 미국방성 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ARPA)에 의해 개발된 컴퓨터 네트워크인 ARPANET에서 태동된 인터넷은 이후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핵심수단으로 평가받으면서 2001년 현재 전 세계 약 2300만개 이상의 컴퓨터들과 약 6억명에 달하는 사용자들로 연결된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네트워크로 자리 잡았다.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000만 시대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58%에 해당하는 26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가구가 1000만에 육박하고 있어 인터넷의 양적 성장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유사 이래 농경시대, 산업시대를 거치면서 어느 사회보다도 지식정보화사회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산악지형이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뜨거운 교육열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인재층이 두텁기 때문에 IT 및 인터넷을 통한 가치창출에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바이러스, 금융사기 등 전산망을 통한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음란·폭력물과 같은 불건전정보의 유포 등 인터넷 오·남용으로 초래되는 심각한 혼란으로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전염성 질병의 출현으로 사회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던 경험이 있다. 나병은 13세기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며, 14세기 중반에는 흑사병이 유럽을 덮쳐 약 5년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을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정보화로 인한 피해사태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2001년 코드레드 바이러스는 26억 달러(30만대 컴퓨터)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켰고, 서캠 바이러스는 10억달러의 피해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해동안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만 무려 123억달러에 이른다(컴퓨터이코노믹스 12월)는 것은 인터넷이 주요 매개가 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바이러스가 전 사회를 마비시키는 전염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인터넷 활용의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역기능 대책수립에 있어서도 선두에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급격하면서도 새로운 문제에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보장해야

정보화의 역기능은 대부분 인터넷의 개방성, 초고속성 및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이 가능하지만 우선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서 그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령별, 학력별로 인터넷 이용률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연령 및 계층에 치중된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한 자정력(自淨力) 부재가 인터넷의 역기능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지자체 및 대학, 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도 정보격차 해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인터넷교육 '실버넷 운동'에 불을 지폈고, 주부 및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1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진행된 '주한외국인노동자 무료인터넷교육'은 필리핀, 몽고 등을 비롯한 22개국 5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수료해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를 재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나아가 정보센터는 베트남, 북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IT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IT 및 인터넷 허브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자체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을 통해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이버 세상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별, 학력별, 연령별,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인터넷이 될 수만 있다면 갖가지 역기능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씩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터넷 사용자 개개인이 인터넷 역기능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양적인 부분에서 인터넷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개발하고 정착시켜 풍성한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 간다면 진정한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지식정보사회의 리더국가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